



고려 시대 음악 918~1392년

학습 목표 고려 시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통일 신라의 음악 문화가 전승되어 우리 고유의 향악과 당나라의 당악, 송나라와 교류하며 편종, 편경과 함께 전래된 대성 아악을 받아들여 향악, 당악, 아악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악(樂, 기악), 가(歌, 노래), 무(舞, 춤)가 연주되었다.

향악 사모곡, 청산별곡, 한림별곡 등의 고려 속 악이 있으며, 악기로는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대금, 중금, 소금 등의 통일 신라 시대의 삼현 삼죽에 당악기인 해금, 장고, 박이 향악으로 연주되었다.

삼현 육각 악기
악기 편성: 향피리 2개, 대금 1개, 해금 1개, 장구 1개, 북 1개

문묘 제례악 “문묘 제례악”은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곡으로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문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음악과 춤을 말한다. 가사 한 음절에 음이 하나가 붙는 1자 1음 구성이며, 음의 길이가 균등하고 관악기의 끝 음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아악곡이다.



1 “문묘 제례악”의 ‘황중궁’을 감상하며 음악적 특징을 파악해 보자.

황중궁

국립국악원

黃 南 林 如 太 姑 南 林 應 南 葵 姑 南 林 黃 太
황 남 임 고 태 고 남 임 응 남 유 고 남 임 황 태